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85



Contents

※ 2025.06.26.(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6.19.~2025.06.25.)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수소 1

- 하반기 수소차 보급 확대 대비 수소 수급 상황 점검 (2025.06.19)1
- 덴마크공과대학교-범한퓨얼셀,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25.06.19)1
- 창원특례시의회, 수소생산기지 운영 활로 모색 (2025.06.19)2
- 동해시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 육성 본격화 (2025.06.19)2
- 청정수소산업 업종전환 지원센터 개소 (2025.06.19)2
- 1일 5만명 이용 제주형 수소트램 기대와 우려 교차 (2025.06.21)3
- 그린수소 산업 공들인 전북자치도,李 정부서 전북 몫 찾아야 (2025.06.22)3
- 울산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2025.06.24)4
- 경북도 원전정책발전연구회, 급변하는 세계 원전시장 대응 원전·수소산업 발전 모색 (2025.06.24) 4
- 충전소 1곳뿐 수소버스 300대 운행 가능할까 (2025.06.24)5
- 울산경자청, 수소기업 고충 듣고 투자유치 도모 (2025.06.24)5

■ UAM 6

- 정부, K-UAM·드론 산업 민관 협력 본격화(2025.06.19)6
- 고양 킨텍스, 2025 드론·UAM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2025.06.23)6
-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 25~28일 개최(2025.06.24)7

- 인천시,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공모 신청(2025.06.24)7

■ 우주 8

- 우주청, 재사용발사체 조기 상용화 나선다 (2025.06.20)8

- 우주청, 누리호 1차레 더 쏘는 사업 추진 (2025.06.20)8

- 사천시, 파리에어쇼에 우주항공기업 수출 지원·사천에어쇼 홍보 박차 (2025.06.19)9

- 경남도, 프랑스 지방정부와 우주항공 협력 확대 모색 (2025.06.22)9

- 전남도, 국방우주·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속도 (2025.06.23)10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1

■ 수소 11

- 한자연, 이동형 수소연료 발전기 기술 개발 MOU 체결 (2025.06.19)11

- 태양에너지로 그린수소 생산하는 인공나뭇잎, 상용화 문 열어 (2025.06.23)11

- 부산테크노파크-부산수소동맹 탄소중립 환경기부금 기탁 (2025.06.24)12

■ 우주 13

- KAI,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항공·우주 협력 강화 (2025.06.19)13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4

■ 수소 14

- 현대로템, 수소 철도 기술로 글로벌 시장 선도 (2025.06.19)14

- 카잡하이케어·신한카드, 수소차 충전할인 카드 출시 (2025.06.19)14

- HD현대, 수소로 움직이는 크루즈선 기술 개발 착수 (2025.06.19)	14
- 네오오토, 현대차 차세대 수소차·EREV 핵심 감속기 부품 수주 (2025.06.19)	15
- 수소사회를 향한 27년 담은 현대차 넥쏘 (2025.06.20)	15
- MC유 함께해달라 수소차 캠페인 나선 현대차 (2025.06.20)	16
- 충북에 수소도시 만든다 현대차그룹, 다자간 MOU 체결 (2025.06.24)	16
- 롯데SK에너루트, 첫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 가동 (2025.06.25)	17
- 이화여대, 더 저렴한 수소에너지 촉매 해법 찾았다 (2025.06.21)	17
- 그린수소, 탄소중립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 (2025.06.22)	18
 ■ UAM 18	
- 유아이그룹-GS건설, 도심항공교통 사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2025.06.19)	18
- 재계 분석-현대차 PBR 0.5배 자율주행·로봇·UAM 3축 반전 기대(2025.06.20)	19
- ANH, 2025 파리에어쇼 참가 UAM 객실개발 업무협약 체결(2025.06.20)	19
- 곧 다가올 UAM 시대 대비 발전방향 논의(2025.06.19)	20
 ■ 우주 21	
- 항공우주·스텔스도로 신기술 페인트 뜯다 (2025.06.19)	21
- 스페이스앤빈은 왜 미래 우주의 열쇠가 상용 부품이라 말할까 (2025.06.20)	21
- LK삼양, 텔레픽스와 심우주항법용 차세대 AI 별추적기 발사 (2025.06.24)	22
- 아비오, 다쏘시스템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DX 전환 (2025.06.20)	22
- 마크롱, 유럽 우주산업 강국 만들 것 (2025.06.21)	23
- 우주강국 부상 인도 민간 우주기업 수도 세계 2위 (2025.06.22)	23
- 우주 연구기관 사천행 시도에 거센 반발 (2025.06.19)	2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하반기 수소차 보급 확대 대비 수소 수급 상황 점검 (2025.06.19) -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판매 시작한 신형 수소 승용차 디올뉴 넥쏘 보급계획 설명 - 올해 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5454톤 기록.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 기준 최대 수요가 1만 5000톤으로 전망되지만 공급능력은 1만9000톤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 가능 - 8월 충남 서산에 정부 지원을 받은 연간 4950톤 규모의 대규모 기체수소 공급시설 준공 예정. 해당 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 수급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름철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설비고장 방지를 위한 선제적 설비점검 당부
지자체	□ 덴마크공과대학교-범한퓨얼셀,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25.06.19) - 박완수 경남도지사 주도로 경남대표단이 덴마크공과대학교 에너지연구소를 방문하여 범한퓨얼셀과 차세대 수전해기술 국제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연구과제로 한국형 고체산화물 수전해 스택 개발과 진단 기술 구축이 목표 - 범한퓨얼셀은 창원 본사의 국내 대표 수소전문기업으로 독일 지멘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상용화 성공. 덴마크 공과대학교는 유럽 공과대 평가기관 EngiRank 1위 명문대학으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기술 분야 세계적 기술력 보유 - 양 기관은 그린수소 생산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술 및 정보 공유, 기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수소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창원특례시의회, 수소생산기지 운영 활로 모색 (2025.06.19) -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국내 최초의 수소생산기지인 성주동을 방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최정훈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는 경제성 저하로 인한 가동 최소화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 -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과 유지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소생산기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 나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를 방문해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등 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핵심 연구 성과 확인 -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며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에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
	□ 동해시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 육성 본격화 (2025.06.19) - 동해시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사업이 본격화되어 2023년 연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지난 5월 사업부지 매입 완료. 이달부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공모 절차가 본격 진행되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 수소기업 지원 시책으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과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2개의 기업 선정. 연간 1억원 최대 2년의 사업비를 지원해 소재, 부품, 장비 등 제품 상용화를 앞당기고 지역 내 수소산업 기반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회발전특구,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 지정·운영 등 수소산업 전략거점 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며 강원·울산 수소융합에너지 산학연협의체와 함께 청정 수소산업 업종전환 지원센터 개소
	□ 청정수소산업 업종전환 지원센터 개소 (2025.06.19) -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청정 수소산업 업종전환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을 회원으로 하는 산학연협의체가 지난 3월 울산지역과 연계해 광역형 협의체 출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수소산업과 연계한 산학연기술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 목표. 센터는 산학연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북평산업 입주기업들의 수소기업 업종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담당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설치된 센터는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과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1일 5만명 이용 제주형 수소트램 기대와 우려 교차 (2025.06.21) -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는 수소 트램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김만덕기념관에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 개최. 백승근 전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은 제주의 대중교통 부담률이 10%를 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트램 도입의 필요성 강조 - 2028년 국내 최초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 수소 전기트램을 도입하는 대전시 이종익 철도정책과장은 초기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만 현재는 정시성과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제주도의 결단 주문. 이용상 우송대학교 부총장은 제주야말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최적지라고 평가 -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제주공항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km 구간에 2023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총사업비 5293억원 투입 예정. 1일 이용객 예상치는 5만3841명이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79로 경제성 확보가 과제
	□ 그린수소 산업 공들인 전북자치도, 후 정부서 전북 몫 찾아야 (2025.06.22) - 이재명 정부가 그린수소 산업 육성에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성 등의 문제로 좌초됐던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사업의 재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제시 -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거점 구축사업하는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경제성 문제로 지난 2023년 결국 좌초. 이후 수소상용모빌리티 조성 등 기존 기반을 활용해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 완주 지역에 수소저장 및 활용 분야 중심 산업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등 수소용품, 연료전지 분야 등 전방위 지원 인프라 확충 추진 중. 현재 기술력이나 여건으로는 그린수소 생산은 경제성 문제로 어렵지만 기술력 확보 등은 꾸준히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울진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2025.06.24) - 경북 울진군이 지속 가능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손병복 울진군수와 환동해산업연구원장, 경북도·울진군 관계 공무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 군은 세계 최대 원전 보유 지역으로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사업 등과 함께 원자력 청정수소를 활용한 수소도시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 -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제3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2028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 건물 열공급용 수소설비 도입, 수소버스 보급, 수소통합안전관리센터와 수소체험형 주민복지시설 및 수소홍보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 마스터플랜 용역의 주관사로 선정된 넥서스도시랩 컨소시엄은 착수 보고를 통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한 차별화된 수소도시 모델을 제시할 계획.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원자력 청정수소를 활용한 수소도시 모델 완성과 주민들이 수소를 체감할 수 있고 안전한 수소도시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힘
	□ 경북도 원전정책발전연구회, 급변하는 세계 원전시장 대응 원전·수소산업 발전 모색 (2025.06.24) - 경북도 원전정책발전연구회가 경주시 감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경북도 원전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황명강 경북도위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경북도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 경북의 에너지산업과 미래전략을 조망하고 원자력 및 수소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 논의 - 홍석표 경북도 국장이 경북의 수소와 원전정책을 소개하고 박홍준 동국대 교수가 경북의 SMR산업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 황명강 의원은 급변하는 세계 원전시장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경북의 원전에도 미래가 있다며 경북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SMR 산업도 경북에서 꽃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경북도 원전정책발전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 원전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 경북의 원자력과 수소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북도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앞당김과 동시에 SMR 산업, 방폐물 등에 대해서도 정책 개발을 모색해 나갈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충전소 1곳뿐 수소버스 300대 운행 가능할까 (2025.06.24)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10월부터 그린수소 버스 21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빈약해 노선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처럼 양쪽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가 운행 중인 버스 중앙차로에는 수소버스를 도입하지 못해 대중교통 개편 정책이 후퇴. 현재 수소버스 21대와 수소 승용차 55대 등 76대가 운행 중 - 함덕 충전소 외에 한림과 화북 2곳에 각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투입한 민간업체 주도의 수소 충전소 추가 설치사업이 부지 미확보와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될 위기. 함덕에만 충전소가 있어서 수소버스 21대는 함덕을 기점으로 제주시 동부지역에만 운행 중이며 서부지역에서는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 - 함덕 충전소의 수소 압축기는 하루 최대 600kg까지만 압축이 가능해 대당 5억원에 달하는 수소버스 5대는 매일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는 압축기 설비를 오는 10월까지 300kg 규모로 추가 증설해 행원 생산시설의 그린수소 여유분 1.2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 양경호 의원은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와 수소 청소차 200대 도입 목표에 충전소 확대가 선결과제라고 지적
	□ 울산경제자유구역, 수소기업 고충 듣고 투자유치 도모 (2025.06.24)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경제자유구역 3층 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방안 논의 및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고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현장지원활동의 일환으로 마련. 이경식 울산경제자유청장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수소산업협회, 롯데케미칼, 에어프로덕츠코리아, 한국에머슨 등 기업 관계자 10여명 참석 - 경제자유구역, 외투 부지 및 지원프로그램 소개와 기업 소개·동향 공유, 기업 건의·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었으며 대·중견기업들의 수소산업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기관들의 산업기술과 정책 방향 논의가 이뤄짐. 울산경제자유청은 수소·저탄소에너지를 포함한 3가지의 핵심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 견인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관련 세부추진과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속 발전 도모 - 울산은 국내 최대 수소 생산, 최대 수소 배관망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 수소 관련 기반이 풍부하여 전후방 산업이 발달해 있어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 발전 전초기지 역할 수행. 이경식 울산경제자유청장은 정부·울산시의 수소산업 정책과 기업의 사업방향이 잘 융화돼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경제자유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정부, K-UAM · 드론 산업 민관 협력 본격화(2025.06.19) -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기업과 함께 UAM 및 드론 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UAM은 2040년까지 세계 시장은 6090억달러, 국내 시장은 13조원 규모로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배터리와 IC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격차를 좁혀야 하는 상황. 정부는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을 통해 대규모 실증사업, 연구개발, 규제 특례 등을 추진 중이며 드론산업은 드론 실증도시 조성,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발족을 통해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 - 민간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들이 핵심 기체 및 부품 기술 자립화 투자 확대, 규제 환경 유연화, 전문인력 양성, 실증화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대한항공, UAMKAI, KT, 간삼건축, 브이스페이스, 버티, 드론유비파이, 볼로랜드, 메이사 등이 참여. 신상훈 추진단장은 정부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인재 양성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지자체	☐ 고양 킨텍스, 2025 드론 · UAM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2025.06.23) - 킨텍스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열리는 2025 드론 · 도심항공모빌리티박람회의 참가기업 모집에 착수.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한국드론혁신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육군교육사령부가 후원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드론 및 UAM 전문 행사 -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며 드론 및 UAM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국방 협력, 지자체 정책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으로 기대. 참가기업은 산 · 학 · 군 · 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방 분야 네트워킹과 수출 및 구매 상담회, 공공기관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7월 4일까지 조기 신청 시 참가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지난해 첫 박람회에는 포스코, LIG넥스원,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총 77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약 1만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아 총 70억 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 25~28일 개최(2025.06.24) - 광주시가 25~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모빌리티·뿌리·로봇·드론 융합 전시회인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250개사가 500부스 규모로 참여.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국제그린카전시회,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를 통합 개최하고 2025 광주 드론·도심항공교통 전시회와 동시 개최 - 주요 전시 품목은 모빌리티·친환경자동차·퍼스널 모빌리티·특수 목적용 자동차·UAM·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교육/서비스 로봇·로봇 활용 서비스, 인공지능 가전, 사물인터넷플랫폼, 정보통신기술 등. 현대자동차그룹 테크관이 광주 전시장에서 선보이며 대표협력사 11개사가 참여해 자율주행 물류로봇, 자율주차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유한 기술 시연 - 올해 광주미래산업엑스포의 전시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관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람객들이 직접 로봇경기를 관람하며 첨단 로봇 기술을 생생하게 경험 가능. 벤츠, 토요타, 렉서스, 혼다 총 4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전기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는 전기차 야외특별관과 SWM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시승 행사 등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개최
지자체	□ 인천시,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공모 신청(2025.06.24) - 인천시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2025년 UAM 지역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시와 함께 하늘을 두고 경쟁에 나섰음. 국토부는 이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 및 실현가능하고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을 재정·정책적으로 지원하며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해 사업 1개당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 지원 방침 -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교통형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버티포트를 건설해 도심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수도권 주요 거점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UAM 노선을 통해 혼잡한 도심 교통을 분산시키고 미래형 항공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 -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차·대한항공·KT·현대건설로 구성된 K-UAM 원 팀 컨소시엄과 UAM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미 국토부의 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도심 실증사업을 유치해 경인아라뱃길 노선에 버티포트 설치 및 실증운행 작업을 진행 중. 부산시도 이번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두 도시의 주도권 경쟁이 하늘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국토부는 현장실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9월 시범지역을 최종 선정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우주청, 재사용발사체 조기 상용화 나선다 (2025.06.20) - 우주항공청이 오는 2035년 재사용발사체를 조기 완성하여 글로벌 재사용발사체 개발이 활발한 상황에서 조기 시장 진입을 통해 오는 2038년부터는 재사용발사체를 회수해 본격 재사용에 나선다는 계획.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 대한 브라운백 미팅을 진행하고 사업 변경안을 소개 -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은 국가 우주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자주적인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청 주관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 2조132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사업. 기존 소모성 발사체 개발 이후 재사용발사체로 전환하는 설계 대신 곧바로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하는 게 핵심 - 엔진 기술도 기존 대비 성능은 동일하지만 개발 난이도는 낮은 메탄가스발생기로 전환하고 재사용 기능 구성품도 개발하며 연간 2기 이상의 제작 능력도 확보한다는 목표. 우주수송 개발의 패러다임이 소모성이 아니라 항공기처럼 다회 운행하는 운송수단으로 바뀌면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이 활발하며 우리나라도 2030년대에는 재사용발사체를 확보하면 미국에 이어 재사용발사체 상용화가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주청, 누리호 1차례 더 쏘는 사업 추진 (2025.06.20)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2028년 한 차례 더 쏘는 사업이 추진되어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위성덮개를 확장하고 국방 안보위성 2기를 기존에 쏘던 궤도가 아닌 경사 궤도에 투입하는 사업.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 중이며 아직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지는 않음 -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공개했으며 이 사업은 국방부에서 누리호를 통해 국방 시험위성 2기 발사를 요청하면서 준비.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한다는 기조 아래 최소한 공공 위성부터라도 국산 발사체를 활용해야 하며 발사체 업계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업계에서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이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민간의 제조역량 및 현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술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 발사수요 확보를 통한 추가 발사 지속유지, 산업체 인력과 시설 및 장비 운영 유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가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발사 서비스를 조속히 발주해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주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
지자체	□ 사천시, 파리에어쇼에 우주항공기업 수출 지원·사천에어쇼 홍보 박차 (2025.06.19) - 경남 사천시가 세계 최대 항공우주 전시회인 제55회 파리 에어쇼에 참가해 지역 우주항공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와 2026년 사천에어쇼 홍보 활동을 진행.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관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B2B 미팅을 지원하고 수출 상담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 김제홍 부시장은 사천시가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산액의 약 48%, 고용인원의 약 40.7%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2026년 경남 사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천에어쇼가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협력과 기술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요청 - 행사 기간 중에는 미국 Amphenol 등 주요 글로벌 방산·우주항공 기업들과 공동 과제 발굴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10월 서울 ADEX에서 관련 업무 협약 체결이 예정. 송월테크놀로지와 QARBON사는 롤스로이스 엔진 부품 신규 사업 협력 및 장기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 창출 □ 경남도, 프랑스 지방정부와 우주항공 협력 확대 모색 (2025.06.22) - 경남도가 현지시각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프랑스 지방정부와의 우주항공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박완수 지사는 현지에서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를 만나 양 지역 간 산업 교류 필요성을 강조받고 실질적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침 - 문승현 주프랑스 특명전권대사와 현지 50여 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소한 경남도 파리 해외사무소와 연계해 개최되었으며 도내 전략산업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목표. 박 지사는 경남은 대한민국 최대 항공·우주산업 중심지로 글로벌 기업 투자가치가 높으며 최적의 입지 여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힘 - 설명회에는 AXA 그룹, 로레알 그룹 등 다수 글로벌 기업이 참석했고 피브스그룹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및 베올리아그룹과는 각각 약 1000만 달러 규모 시설투자 추진과 에너지·자원순환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 피브스그룹은 우주항공 및 자동차 분야 설비 공급에 나서며 베올리아그룹은 공공기관 대상 친환경 솔루션 제공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 전남도, 국방우주·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속도 (2025.06.23) - 전라남도가 고흥 썬밸리 리조트에서 2025 전남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열어 전남 방위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과 국방 우주 분야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 최근 러·우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우주와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가운데 고흥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항공산업과 광양만권의 소재 부품산업 특화 강점을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에 집중 - 방위산업 전문가,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방위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방 우주 강국의 시작, 우주 방위 산업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후속 논의를 진행.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이 첨단 방위산업의 미래와 지역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며 방위산업 지방 분권화와 지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 - 핵심 전략은 순천, 고흥을 중심으로 한 국비 245억 원 규모의 방산 혁신 클러스터사업 유치이며 전남도는 우주·항공과 소재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방 우주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공모를 준비. 방산 혁신 클러스터엔 2020년 경남 창원,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 구미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사례발표에서는 파루전자가 국방 위성용 우주 히터 개발 사례를, 위드피에스가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한 기술개발·양산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 뿌리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가능성을 시연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한자연, 이동형 수소연료 발전기 기술 개발 MOU 체결 (2025.06.19) -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육군과 충남 천안에서 이동형 수소연료 발전기 및 수소공급장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진중욱 한자연 원장과 김태후 육군본부 공병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 20여명 참석하여 국방 분야 수소연료 기술 협력 합의 - 이동형 수소연료 발전기의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용개념과 운영 방안 공동 설정, 실증 및 운용 적합성 평가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에너지 효율성과 저소음, 친환경을 갖춘 수소연료 기술의 국방 분야 중요한 역할 기대 - 육군과 수소 등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국방 모빌리티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국방력 향상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
지방기관	□ 태양에너지로 그린수소 생산하는 인공나뭇잎, 상용화 문 열어 (2025.06.23) -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이재성·석상일·장지욱 교수팀이 고효율·고내구성·대면적 확장성을 모두 갖춘 모듈형 인공나뭇잎 개발하여 태양에너지를 수소로 직접 전환하는 인공광합성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임. 인공나뭇잎은 자연의 잎처럼 햇빛과 물만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외부 전력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며 수소 생산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 생산 방식 -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태양광 흡수층과 니켈-철-코발트 촉매를 활용해 1cm² 단위의 고효율 광전극을 제작하고 이를 4×4 배열로 확장한 모듈형 인공나뭇잎 개발. 모듈 전체 수준에서 태양광 수소 전환 효율 11.2%를 달성하여 현재까지 보고된 인공나뭇잎 중 최고 수준이며 상용화에 필요한 10% 이상의 효율을 모듈 규모에서 달성 - 염소를 첨가한 페로브스카이트 흡광층과 자외선에 강한 전자수송층, 촉매층의 조합으로 고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수 니켈 포일과 수지 봉지 기술을 적용해 140시간 연속 작동에서도 99%의 초기 성능 유지 가능. 태양전지 패널처럼 대면적 인공나뭇잎 패널로 확장도 가능해 상업화를 위한 결정적 진전을 이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부산테크노파크-부산수소동맹 탄소중립 환경기부금 기탁 (2025.06.24) -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수소동맹이 부산환경운동연합에 탄소중립·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환경기부금을 전달하여 정부의 친환경 중심 에너지 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민관이 함께 사회적 책임 실천. 부산수소동맹 회원사인 동인엔시스, 한라IMS, 영도산업이 기부에 참여 - 동인엔시스는 수소충전소 설비 및 친환경 선박용 수소에너지 솔루션을 설계·엔지니어링 하고 있는 전문기업이고 한라IMS는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자동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강소기업. 영도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수소전문기업으로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 영역에서 활동 - 부산수소동맹은 2022년 1월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주도로 18개 지역기업과 함께 출발했고 현재 47개사로 늘어났으며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 역할 수행.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환경단체는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산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KAI,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항공·우주 협력 강화 (2025.06.19) -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방위산업업체 록히드마틴사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장에서 열린 2025 파리 국제 에어쇼에서 전략적 협력분야 확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 기반 자율체계 등의 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강구영 KAI 사장과 프랭크 세인트 존 록히드마틴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협력사업 강화뿐 아니라 향후 미래 신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및 신규 사업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회전익,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 AI 기반 자율체계, 우주, 훈련체계, MRO 및 성능 개량 등 신기술 분야 사업 협력 기회 발굴 - KAI는 지난 30년간 록히드마틴과 국방·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공동개발, 기술협력, 산업 파트너십 등에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력 확대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동맹국에 대한 기존 훈련기 및 전투기 시장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고정익, 회전익, 유무인 복합체계, AI 기반 자율체계, 무인기 등 항공우주산업 전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역량 확장을 기대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현대로템, 수소 철도 기술로 글로벌 시장 선도 (2025.06.19) - 현대로템이 2025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수소 브랜드 HTWO와 연계한 수소 밸류체인 생태계 테마관 전면 배치. 대전 2호선 수소전기트램에 적용되는 플랫폼 수소연료전지 모듈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공간 제약이 있는 철도차량과 광역버스에 적합한 기술 선보임 - 수소전기트램, 수소동력차, 수소동차 등 모형 전시를 통한 수소철도차량 라인업 소개와 함께 관람객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수소전기트램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 공간 마련.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EMU-370 모형도 첫 공개 - K-철도의 글로벌 시장 위상 제고를 목표로 국산 고속철의 사상 첫 수출과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
	□ 카참하이케어 · 신한카드, 수소차 충전할인 카드 출시 (2025.06.19) - 국내 유일의 수소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참하이케어가 신한카드와 손잡고 수소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카드 발급 서비스 시작. 수소차 전용 앱 하이케어를 통해 전국 200여개 수소충전소의 실시간 운영 정보 확인부터 예약 ·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수소차 충전할인 신한카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결제금액의 10% 할인과 차량 관련 주차 · 정비 서비스에서도 10%, 대형마트와 편의점, 배달앱 등에서도 각각 5% 할인 혜택 제공. 전월 이용실적 산정 시 수소차 충전금액이 포함되어 이용자의 실질 체감 혜택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카드 발급은 하이케어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카드 신규 이용자에게는 20만원 이상 사용 시 10만원 캐시백 이벤트도 제공. 현재 국내 수소차 보유자의 90% 이상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
	□ HD현대, 수소로 움직이는 크루즈선 기술 개발 착수 (2025.06.19) - HD현대가 HD한국조선해양, HD유럽연구센터, HD하이드로젠과 함께 고체산화물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료전지 시스템의 크루즈선 적용을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착수. 노르웨이 선급 DNV와 독일 대표 크루즈 선사 투이 크루즈도 참여하여 유럽 시장 공략 목표 - SOFC는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연료전지로 연소 과정 없이 전기 생산하여 탄소 저감에 기여. 소음과 진동이 적고 발전 효율이 높아 전력 소모가 큰 크루즈선에 적합한 발전 방식으로 평가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SOFC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7%씩 성장해 약 71억 2400만 달러에 달할 전망. HD현대의 세계 최고 탈탄소 선박 기술을 유럽 현지에서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 네오오토, 현대차 차세대 수소차·EREV 핵심 감속기 부품 수주 (2025.06.19) - 글로벌 모빌리티 부품 전문 기업 네오오토가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부품 공급 및 EREV용 핵심 감속기 부품을 신규 수주했다고 발표. 차세대 수소전기차 NH2에 적용되는 DIFFERENTIAL GEAR ASSY, SHAFT INPUT과 EREV 모델 적용 DISCONNECT ASSY 등 주요 부품 공급 - NH2 부품들은 지난 5월 개발 완료되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고 EREV 부품의 경우 2027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예정. EREV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각각 적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에 감속기 부품이 핵심적으로 적용 - 전기차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존 내연기관과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넘어 차세대 수소전기차와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부품 공급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 산업 변화에 한발 앞서 혁신적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 부품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 수소사회를 향한 27년 담은 현대차 넥쏘 (2025.06.20) - 현대자동차가 2세대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 디 올 뉴 넥쏘에 수소 사회를 향한 27년의 노력을 모두 담았다고 발표. 1998년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2013년 최초 양산형 수소차 투싼IX 개발 성공까지 독자 기술 개발에 노력해온 역사 소개 - 2018년 선보인 브랜드 최초 전기차 전용 모델 넥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수소전기차로 세계 10대 엔진상을 수상하며 수소 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림. 2020년 대형 수소 트럭인 엑시언트와 수소전기버스 등을 개발하여 상용차에도 적용 성공 - 디 올 뉴 넥쏘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최대 720km로 투싼 IX 415km, 1세대 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쏘 609km와 비교해 크게 증가. 연료전지 총 전기출력은 1세대 대비 약 16% 증가한 110kW 달성하고 모터 출력은 150kW까지 33% 향상하여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8초로 15% 단축
	□ MC유 함께해달라 수소차 캠페인 나선 현대차 (2025.06.20) - 현대차가 친환경 가치와 수소 모빌리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넥쏘 러브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 국내 유일의 승용 수소차인 디 올 뉴 넥쏘의 출시에 발맞춰 이산화탄소 없이 물만 배출하는 수소 모빌리티의 여정에 함께해 달라는 메시지 전달 - 첫 주자로 MC유를 선정하여 안경과 정장 이미지를 포함해 디어.엠씨유 글귀를 담은 메시지를 옥외·극장 광고, 현대차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로 송출. 이 인물이 화답하면 함께 넥쏘 러브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 - 고객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에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를 태그하고 디 올 뉴 넥쏘의 수소 모빌리티 여정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아 게시물을 올리는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 추첨을 통해 뱅앤올룹슨 스피커와 친환경 비누, 칫솔 등 제로웨이스트 키트 제공
	□ 충북에 수소도시 만든다 현대차그룹, 다자간 MOU 체결 (2025.06.24) - 현대차그룹이 충청북도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여 청주를 수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중부 내륙 지역의 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현재 청주시 건설 중인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4배 확대 - 하루 2000kg 청정수소를 생산해 지역 내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며 충전 인프라 설치 확대, 수소 모빌리티 도입 등의 노력도 함께 진행.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여러 인허가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 관련 행사 개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진도 및 성과 관리 담당. HTWO를 기반으로 펼쳐온 국내외 수소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소개하며 충청북도 최초의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롯데SK에너지, 첫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 가동 (2025.06.25) - SK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의 합작사인 롯데SK에너지가 설비 용량 20MW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울산하이드로젠파워2호의 상업 운전 본격 개시. 2023년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약 772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공적 체결 -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연간 약 160GWh의 전기를 20년 동안 생산할 계획으로 4인가구 기준 약 4만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전용 모델 적용으로 향후 청정수소 도입 시 추가적인 설비 변경이나 개조 없이 연료전환 가능하며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추가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에너지효율화 실현 - 내년 11월까지 총 4개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누적 운영 규모는 총 80MW에 이를 전망. 울산 지역 내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세수 증대 및 직·간접적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사업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생산부터 유통, 활용, 기술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의 핵심 역량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
대학교	□ 이화여대, 더 저렴한 수소에너지 촉매 해법 찾았다 (2025.06.21) - 이화여자대학교 조수연·이상현 화공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위상 준금속인 니켈 텔루라이드의 수소 발생 반응 기제를 규명해 고효율 수소 생산 촉매로서의 가능성 입증. 탄소중립 시대에서 수소에너지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지만 백금 등 고가의 귀금속을 촉매로 사용하는 탓에 경제성이 낮은 문제 해결 실마리 제시 - 한국거래소 집계 1g당 백금 가격은 20일 기준 약 5만2700원으로 지난해 약 4만4000원보다 크게 상승하여 백금 등을 대체할 위상 귀금속 같은 양재 소재가 대안으로 부상.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위상 귀금속 중 니켈 텔루라이드가 전하 이동이 빨라 수소와 결합 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밝혀냄 - 연구 논문은 화학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지난 16일 온라인 게재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자 교류지원사업과 이화여대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단의 지원으로 진행. 이번 연구를 통해 고성능 수소 에너지 개발에 큰 혁신을 줄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그린수소, 탄소중립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 (2025.06.22) - 환경보호협의회와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울산의 신재생에너지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이 울산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개최.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장 이병규 교수가 수소생산 문제 및 그린수소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 - 기존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피할 수 없어 지구온난화와 가뭄, 홍수, 산불 등과 같은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한다고 강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재의 블루수소 생산법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을 적용하면 저탄소 수소생산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는 오염 없이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고 미래에는 저탄소 수소생산법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소생산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경환 책임연구원은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유아이그룹-GS건설, 도심항공교통 사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2025.06.19) - 유아이그룹과 GS건설이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도심항공교통 사업의 초기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 사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주도의 UAM 시범 사업에 공동 대응하여 주요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UAM 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할 계획 - GS건설은 도심항공교통 통합 운용 사업을 기획·주도하고 유아이그룹은 eVTOL 항공기 운영과 그에 필요한 운항 제반 시스템 수립을 지원할 예정. 유아이헬리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터는 항공정비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eVTOL 항공기의 정비시스템구축과 품질/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 - 유아이그룹 임성의 부회장은 GS건설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양사의 협업이 대한민국 미래항공산업의 발전에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민간기업	□ 재계 분석-현대차 PBR 0.5배 자율주행·로봇·UAM 3축 반전 기대(2025.06.20) -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종합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며 미래산업으로 점 찍은 분야가 도심항공 모빌리티.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시장까지 진출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택한 회사가 슈퍼널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모두 9억2000만달러를 투자 - 슈퍼널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인 S-A2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미 FAA 승인 절차가 진행된 선도 기업 조비나 아처 에비에이션보다 진행이 느리다는 평가. 현대차그룹의 미래산업 중 가장 후한 평가를 받는 분야는 로봇으로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8억8000만달러에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로봇 선두업체 -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 로보틱스라는 미래산업 삼각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중이며 일부 기술력 부족이라는 난제가 있지만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그룹의 미래 핵심 전략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 세 분야의 기술을 단순 병렬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추구하며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간의 협업 물류 시스템, UAM 탑승 지원 로봇, 스마트시티 내 통합 관제 시스템 등이 대표적
민간기업	□ ANH, 2025 파리에어쇼 참가 UAM 객실개발 업무협약 체결(2025.06.20)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가 프랑스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55회 2025 파리에어쇼에 참가해 영국의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업 SORA Aviation과 기내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SORA는 30인승급 eVTOL BUS를 개발하고 있는 영국기업으로 오는 2028년 초도비행을 계획 - ANH는 국내 유일의 유럽연합항공안전청 설계조직 인증 및 생산조직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 UAM 기체용 좌석을 포함한 캐빈 솔루션에 전문화된 국내 기업.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SORA-S1 기체의 객실, 조종석, 승객석 등 기내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업무 협력 및 한-영 양국 간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상호 협력할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친환경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모델을 선도하는 사례로 평가. 안현수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ANH만의 기내 인테리어 기술력을 글로벌 UAM 시장에 진출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곧 다가올 UAM 시대 대비 발전방향 논의(2025.06.19)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타워에서 제4회 공항포럼을 개최하여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공항 상주기관장, 인천공항 자회사 경영진 등 약 200명이 참석. 김재우 대한항공 전문위원이 차세대 항공모빌리티 도입과 미래항공교통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UAM 기술과 시장, 운항과 교통관리, 국내 주요 동향 소개 - 대한민국에서 UAM을 실용화한다면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이 가장 먼저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제주는 공항에서 승객이 내리면 UAM을 타고 서귀포를 오가는 관광형 UAM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다만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 특성상 사업성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해외의 경우 2026년 말,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6년 말이나 2027년에는 UAM 시대가 본격 열릴 것으로 전망하며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나 UAM 운항을 위한 시스템 개발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비전2040을 선포하며 초연결 모빌리티 허브 완성이라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인천공항에 UAM 공항서들 상용화를 적극 추진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항공우주 · 스텔스도로 신기술 페인트 뜬다 (2025.06.19) -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새 먹거리가 시급한 페인트 업계가 고부가가치 도료와 기능성 제품 같은 신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으며 KCC는 방산도료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음.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에 도료를 공급하면서 관련 매출이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로 전투차량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위장도료, 항공기 연료탱크 내부 코팅 등 무기체계 전반에 적용되는 도료를 생산 - KCC는 KAI와 협업해 항공우주 특화 도료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저궤도 위성, 무인전투 시스템, 우주 기반 플랫폼 등 미래형 국방기술에 필요한 도료와 필수 소재 개발에 착수. 노루페인트는 지난 4월 스텔스 도료 RAM-1500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으며 고분자 미세 구조와 입자 조성을 정밀하게 설계해 전파를 최대 90% 흡수하는 기능 구현 - 기존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스텔스 도료를 경량화해 국내에서 만들게 된 것이며 전파를 흡수하는 물질 무게도 기존보다 20% 줄여 제품을 경량화. 지난해부터는 KAI와 항공기 유지·보수·정비에 쓰이는 실란트도 개발하고 있으며 실란트는 항공기 연료탱크가 새지 않도록 하고 조종실 압력을 유지해주는 핵심 소재
	☐ 스페이스엔빈은 왜 미래 우주의 열쇠가 상용 부품이라 말할까 (2025.06.20) - 민간 기업이 우주를 개척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고가의 저성능 우주용 부품이 아닌 상용 제품 COTS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 COTS는 우주용 부품과 비교해 수백에서 수천 배 가량 저렴하며 높은 성능과 단축된 개발 주기, 비용 효율성 등을 모두 만족하지만 방사능 내성이 없고 자기권 차폐가 존재하는 온화한 환경으로 설계 - 스트레이츠리서치는 2024년 방사능 차폐재 시장 규모를 15억 달러로 평가했고 2033년까지 연평균 6.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페이스엔빈은 우주 방사선 차폐 하우징 스쿠터 R과 COTS 우주 환경 최적화 적용을 위한 설계 과정인 프라이데이를 취급하며 폴리이미드, 폴리에틸렌 기반 플라스틱 계열의 차폐재 개발 - 스페이스엔빈은 위성임무의 궤도 환경을 분석하고 예상 방사능 값을 바탕으로 소재별 방사선 비정거리를 분석해 어떤 차폐재를 어떤 두께로 설정할지 계산.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과학연구단의 ESCC 표준 준용 과정을 통한 실증 기반 방사선 차폐 성능을 실제로 측정하며 국내 최초로 우주 소재 시험을 진행해 차폐 소재를 적용한 COTS가 양성자 노출 시에도 정상 작동함을 확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LK삼양, 텔레픽스와 심우주항법용 차세대 AI 별추적기 발사 (2025.06.24) - LK삼양이 우주 인공지능 종합 솔루션 기업 텔레픽스와 공동 개발한 심우주항법용 차세대 AI 별추적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 현지 시간 23일 오후 2시 26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의 팔콘9 로켓 트랜스포터-14 라이드셰어 미션을 통해 우주로 발사되었으며 현재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초기 운영을 시작 - 심우주항법용 차세대 AI 별추적기는 달, 화성 등 지구로부터 먼 심우주에서 위성이 지상국의 통신 지원 없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항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자율항법 시스템. 기존에는 지상국에서 위성을 지속적으로 관제하며 궤도를 제어해야 했지만 이 방식은 오차 누적과 지상 기반 관제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별추적기를 위성에 탑재하면 위성이 자체적으로 항법을 계산할 수 있어 심우주 탐사의 핵심 기술로 주목 - 양사가 개발한 별추적기는 광시야 초고해상도 카메라와 고성능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결합해 별과 행성 등 천체의 상대적 위치를 관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성 스스로 정확한 위치와 궤도를 계산. 위성의 자세만 측정할 수 있었던 기존 별추적기와 달리 위치 결정 기능까지 구현되어 보다 완벽한 자율 항법을 가능하게 하며 LK삼양은 이번 발사 테스트 성공을 통해 자사 광학 렌즈가 우주 환경에서도 충분히 작동한다는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처음으로 확보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아비오, 다쏘시스템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DX 전환 (2025.06.20) - 이탈리아의 우주 발사체 기업 아비오가 전사적 프로그램 관리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링 및 제조 프로세스 구축. 우주 산업 내 지속 가능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아비오는 이번 플랫폼 도입을 통해 기술적으로 진보된 우주 솔루션 개발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비오와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용자들은 주요 유럽 우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발사체, 추진 시스템, 페이로드 어댑터 등의 설계 및 제작 과정에 필요한 효율성, 표준화, 품질 및 규제 준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됨. 위닝 컨셉, 코-디자인 투 타깃, 레디 포 레이트, 빌드 투 오퍼레이트를 도입해 팀과 공급업체, 협력사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아비오는 이번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개발 기간 단축과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설계 및 제조 프로세스의 정밀도 제고를 통한 품질 개선,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한 혁신 가속화, 그리고 통합된 가상 생태계 기반의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등을 기대. 실시간 데이터가 적용되는 가상 환경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전망
	□ 마크롱, 유럽 우주산업 강국 만들 것 (2025.06.21) -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항공우주박람회 파리에어쇼에서 미국과 중국 양강 체제인 우주산업에서 유럽을 다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권력의 척도가 됐으며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우주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스페이스X가 시장을 뒤흔들었고 아마존도 뛰어들었으며 중국도 바짝 쫓고 있어 유럽이 저지구궤도 위성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라고 지적 - LEO 위성통신 시장에서는 스타링크를 따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독주하는 가운데 프랑스·영국 합작업체 유텔샷이 추격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일 유텔샷 증자에 13억5000만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발표. 증자가 마무리되면 프랑스 정부가 유텔샷 최대주주가 되며 프랑스 재무부는 이번 투자가 스페이스X와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국 정부와도 투자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위성통신 원웹을 운영하는 유텔샷은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유럽 내 반감이 커지면서 주목받았으며 스페이스X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통신망을 제공하는 가운데 유텔샷도 독일의 자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내 단말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
	□ 우주강국 부상 인도 민간 우주기업 수도 세계 2위 (2025.06.22) - 인도가 우주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주도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우주기업 수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상승. 2020년 인도 정부가 우주산업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하면서 몇 년 새 인도우주연구기구 출신들의 창업이 활발해졌으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랙슨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인도의 민간 우주기업 수는 172개로 825개의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5960억 달러에서 2033년 9440억 달러로 1.6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가 탄탄한 성장세로 미국 추격을 주도하는 형국. 오랜 기간 ISRO를 중심으로 축적된 기술력이 인도 민간 우주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횟수는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영국이나 일본을 웃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돌았고 금액에서도 인도 민간 우주기업은 지난해 약 2억 4000만 달러를 유치 - 1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수는 인재의 저변을 넓혀 두터운 전문가 집단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며 ISRO를 중심으로 우주 관련 공공기관 직원 수는 약 2만 명으로 미국 항공우주국보다 많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10배 이상. 이들 중 75%는 엔지니어 등 기술 관련 인력이며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이 활발한 점 역시 인도 우주산업에서 강점으로 내세우는 부분
기타	□ 우주 연구기관 사천행 시도에 거센 반발 (2025.06.19)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가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청특별법 개정안에 반발하여 연구기관의 경남 사천 이전 추진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 노조는 항우연과 출연연의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전-경남 사천-전남 고흥 중심의 우주항공 3축을 유지하고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우주항공 산업의 삼각 클러스터는 지리적 안배가 아닌 기능과 효율성에 기반한 국가전략이었다며 구조에 대한 재조정도 없이 특정 지역으로 기관 집중을 시도하는 것은 충청권의 역할과 미래를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 항공우주연구원 내에서도 명분 없는 기관이전 추진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우주청의 격상 후 세종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 제기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프랑스의 툴루즈를 사천의 모델로 삼는다고 주장하지만 툴루즈는 프랑스 4위 도시로 인천, 대구, 대전 급 도시들에 비유할 수는 있어도 사천에 비유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야기라고 지적. 우주항공청이 아니라 우주국방, 우주외교를 관할할 수 있는 통합 우주부처인 우주항공처로 승격해야 하며 행정수도 세종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